‘나눠 먹기식’ 조각 설치 논란 재연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 모집 ‘지명 추천제’ 유지
예술계·시민단체 “문제 제기 하나마나” 반발

유달산 조각공원에 설치될 작품이 ‘나눠 먹기’식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목포시가 4개월여 동안 고심 끝에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변화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 조각작품 설치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5명으로 구성된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작품 심사와 구매 계약을 마치고 내년 5월까지 조각공원에 작품을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예술계와 시민단체가 ‘나눠 먹기’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지명 추천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4월 지명 추천제에 의한 작품 선정 방침에 대해 지역 예술계에서 반발함에 따라 심의위원 5명 가운데 지역작가 1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모 방식 대신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작품 1점씩을 제출하고 5명의 작가를 지명 추천키로 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할 경우 신인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작품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 조례에도 추천을 통해 작품을 선정토록 돼 있다”면서 “그 동안 예술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추천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원안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는 “한 점에 4천여만 원씩 하는 조각 작품 선정이 심의위원 자신의 작품과 5명씩 지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돼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하고 있다.

1982년 문을 연 목포시 유달산 조각공원에는 78점의 작품이 설치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5~6점만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철거한 뒤 35점 정도를 신규로 선정, 배치할 계획이다.

조각작품 구입 예산은 14억 5천여만 원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야간경관 조명 사업 毒? 藥?

목포시의회 허정민의원 “생태계·사람에 악영향”
市선 “관광객 유입 효과 나타나고 있다” 반박

지난 2005년부터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부흥산 인공공원 등 주요 지점에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했다.

목포시가 추진중인 야간경관 조명사업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 허정민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목포시가 2005년부터 추진한 야간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모두 81억 원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해안선 조명사업에 58억 원을 더 들여야하는 등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독이 되는 지 약이 되는 지 잘 따져 봐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질의를 했다.

허 의원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야간경관에 힘입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거나 투자한 만큼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목포만의 자랑거리나 전유물로서의 희소 가치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야간 조명사업이 확대 되면서 생태계와 사람에게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미국 100개 도시가 빛 공해방지법과 조명조례를 제정하고 이탈리아는 빛 공해 추방 운동을 벌이는 등 세계 곳곳에서 빛 공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종득 시장은 “프랑스 리용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일본 고베 등이 야간경관 조명을 관광 상품화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목포시도 상하이나 홍콩 처럼 야간에도 바다에서 유람선을 이용한 야경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경관조명 시설 설치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를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외지인 방문 빈도 등에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관광객 유입 효과 등 경제성 평가를 위해 야간 관광정책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목포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해 8월 유달산 유선각 주변에 설치된 조명등에 타 죽은 매미 200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 관광조명 사업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소음 기준 초과’ 삼양사 목포사료공장 조업 정지

㈜삼양사 목포사료공장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해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는 지난달 22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배출 허용기준치를 (50dB) 초과한 삼양사 목포공장에 대해 다음 달 5일부터 방지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목포시는 삼양사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로 부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삼양사가 보일러 방음문과 분쇄실 방음 마루 등 일부 시설을 보완했으나 여전히 소음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음으로 제조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시는 삼양사 측에서 방지시설을 개선하면 소음측정을 다시 해 조업정지를 해제할 계획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해군 목방사 장병, 태풍피해 농가 일손 도와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하 목방사)가 19·20일 이틀간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다.

목방사 장병 160여명은 고흥군 점암면 일대 3만여 ㎡의 논에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등 대대적인 복구지원활동을 벌였다. 〈사진〉

일손돕기에 참가한 민경홍(21) 이병은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벼를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배(60) 점암 면장은 “벼가 다 여문 상태에서 쓰러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해군 장병들의 신속한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자연사박물관 풍성한 추석

민속놀이 한마당·전통한지 공예교실 등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추석연휴 기간동안 풍성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2일부터 26일까지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추억의 굴렁쇠 굴리기’와 ‘투호 던지기’, 전통놀이인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또 박물관 안에서는 전통한지를 이용해 실생활에 직접 쓸 수 있는 필통, 과반, 팔각함 등을 만들어 보는 ‘전통한지 공예교실’이 열린다.

이밖에 압화(꽃누름공예)체험과 탈 목걸이 꾸미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연사박물관은 다음 달에도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급한 민원서류 인터넷으로 하세요”

목포시 추석연휴 무인발급기·인터넷 서비스 이용 당부

“급한 민원서류 발급은 무인 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목포시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급한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할 때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용토록 당부했다.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목포시청 민원실 ▲목포법원 ▲목포역 ▲중앙병원 ▲(구)무안동사무소 ▲(구)산정2동사무소 ▲(구)북교동사무소 ▲하당동사무소 등 모두 8곳이다. 연휴 기간 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된다. 그러나 목포법원 민원발급기는 사무실 안에 설치돼 연휴기간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인터넷 민원 발급을 원할 경우는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mokpo.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면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주시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군	332-7764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